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보고서 - 2010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2천 2백 2십억 달러, 보험 손실은 3백 6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Contact:

Lucia Bever, Zurich
Telephone +41 43 285 9279

Thomas Holzheu,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190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10년 12월 3일, 서울 -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보고서 팀이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2천 2백 2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의 6백 3십억 달러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다. 이러한 결과가 전 세계 보험산업에 미친 손실은 3백 6십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준이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약 260,000 명에 이르며 이는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0년 발생한 대형재해로 260,000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09년의 15,000명에 비해 훨씬 증가한 수치이다. 올 해 발생한 대형재해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에 발생한 아이티 지진으로 222,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인해 약 15,000명이 사망했으며,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는 6,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규모 지진 피해

전 세계 보험 업계는 2010년 자연재해로 인해 약 310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인적재해로 인한 손실은 약 50억 달러에 이른다. 반면, 2009년에는 전체 보험 손실이 270억 달러에 불과했다.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규모의 지진 손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전반적인 보험금 지급액은 예년에 비해 경미한 수준에 그친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로 덕분에 지난 20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겨울 폭풍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360억 달러 추정 손실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사고당 손해액 10억 달러 초과 8건

2010년 11월까지 개별 사고 손해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재해사고는 8건이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재해는 2월에 발생한 칠레 지진으로서, 보험 업계 전체 잠정 손해액이 80억 달러에 달한다. 9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은 약 27억 달러, 서유럽에서 발생한 겨울 폭풍 신시아(Xynthia)는 28억 달러의 보험 손해를 초래했다.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BP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사고로 인한 재물보험 청구액은 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가 복잡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잠정치는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보고서의 수치는 배상책임부문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보험 손해액은 이보다 증가할 것이다. 6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보험 손해액은 10 억 달러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2,220 억 달러의 사회비용

2010년에는 대형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09년의 630 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2,220 억 달러로 치솟았다.

스위스재보험의 수석 경제학자인 토마스 헤스(Thomas Hess)는 “이 같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 재해의 예방과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할 수 있다. 또한 재해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보험시스템의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으며, 재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극복하는 데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칠레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 서유럽에서 발생한 겨울 폭풍으로 발생한 고비용의 경우, 재해 손실의 대부분이 보험의 혜택을 받은 반면 아이티 지진, 아시아의 홍수와 같은 재해는 거의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했다”고 밝히고 있다.

표 1: 2010년 대형 재해 보험 손실

순위	보험 손실 (단위: 미화 백만 달러)		발생일자 (시작일)	재해 유형	국가
	미화 백만 달러	발생일자			
1	8000	2010.02.27	지진(진도: 8.8)으로 인한 쓰나미	칠레	
2	2 854	2010.02.27	겨울 폭풍 신시아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3	2677	2010.09.04	지진(진도: 7.0)	뉴질랜드	
4	2000	2010.05.12	폭풍(최대 풍속 130km/h). 우박 미국		
5	1 580	2010.04.20	폭풍(최대 풍속 120km/h). 우박 미국		
6	1 023	2010.03.13	폭풍, 우박, 폭우, 홍수	호주	
7	1 014	2010.03.22	폭풍(최대 풍속 120km/h). 우박, 폭우, 진흙사태	호주	
8	1 000	2010.04.20	딥워터 호라이즌호 폭발	미국 멕시코만	

미국의 자연재해. 출처: PCS(Property Claims Services)

표 2: 2010년 대형 재해 별 사망자 수

순위	희생자 수 (사망 및 실종)		발생일자 (시작일)	재해 유형	국가
	사망 및 실종	발생일자			
1	222 570	2010.01.12	지진(진도: 7.0), 여진	아이티	
2	15000	2010.06.15	최고 섭씨 40 도의 이상 고온	러시아	
3	2 480	2010.07.01	몬순 강우로 인한 홍수	중국	
4	2290	2010.04.14	지진(진도: 6.9), 여진	중국	
5	1 980	2010.07.21	몬순 강우로 인한 홍수	파키스탄	
6	1 765	2010.08.08	폭우로 인한 홍수, 진흙사태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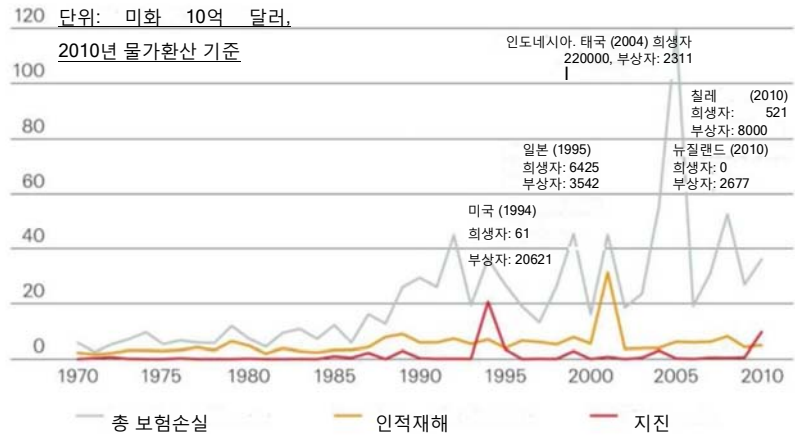
표 3: 1970-2010 년 대형 재해 보험 손실

순위	보험 손실 (단위: 미화 백만 달러)	발생일자 (시작일)	재해 유형	국가	희생자 수 (사망 및 실종)
1	20621	1994.01.17	노스리지 지진(진도: 6.6)	미국	61
2	8 000	2010.02.27	지진(진도: 8.8)으로 인한 쓰나미	칠레	521
3	3 542	1995.01.17	고베 지진(진도: 7.2)	일본	6425
4	2677	2010.09.04	지진(진도: 7.0)	뉴질랜드	0
5	2311	2004.12.26	지진(진도: 9.0)으로 인한 쓰나미	인도네시아	220000

표 4: 1970-2010 년 최대 사망자 발생 지진

순위	희생자 수 (사망 및 실종)	발생일자 (시작일)	재해 유형	국가	보험 손실 (단위: 미화 백만 달러)
1	255000	1976.07.28	지진(진도: 7.5)	중국	n/a
2	222 570	2010.01.12	지진(진도: 7.0), 여진	아이티	30
3	220000	2004.12.26	지진(진도: 9.0)으로 인한 쓰나미	인도네시아	2311
4	87 449	2008.05.12	지진(진도: 7.9)	중국	372
5	73 300	2005.10.08	지진(진도: 7.6)	파키스탄, 인도	n/a

1970-2010 년 대형 재해 보험 손실



용어 및 선정 기준	
자연재해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사고
인적재해	인간의 활동과 연관된 사고
재해 보험 손실	재해로 인한 손실 중 재물보험이 담보하는 손해
총 손실액	보험이 부담보하는 재해 손실을 포함한 총 손실
선정 최저 기준	
총 손실액	미화 8660 만 달러
또는 재물보험 손실	해운: 미화 1740 만 달러 항공: 미화 3480 만 달러 기타: 미화 4320 만 달러
또는 인명피해	사망자 및 실종자: 20 부상자: 50 이재민: 2,000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쾰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1,0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